

전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목표

전북도는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토부 1, 2차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지가 지형·마중물사업으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중앙동 일원(1.37km)에 182억원(국비 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연계한 전라감영주변 특화거리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을 통해 전통문화거점 기능 및 원도심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도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2억원(국산 200, 전주 182, 남원 100)규모다.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개항 이후 근대역사경관조성을 연계해 관광객 수가 사업추진 이전인 2013년 22만명에서 2016년 102만명으로 5배가 급증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평가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엔 추진하는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을 시작으로 구도심에서 추진 중인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전주시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협업사업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을 비전으로 감영지구, 공공기관거점지구 등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및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재생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부차용인 젠트리피케이션, 즉 기존주객

및 상가 전월세 등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라감영, 영화의거리, 전통문화지구를 순환하는 명실공히 전북도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주민·상가·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도록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신청

도, 22일까지 접수

전북도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을 22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영농규모 확대와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 유능한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최대 2억원의 용자금과 교육, 컨

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46명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89억7900만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많은 후계농업경영인이 본 사업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영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22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4월말에 선정된다. /인재용 기자

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농기계산업 육성 협력키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9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지사를 면담하고 양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 방안을 협력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성일 원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전북도 농기계산업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전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농기계산업에 대해 양 기관 간 공동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 정책 발굴 및 국가 공모사업 유치 등에 상호 협력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그간 전북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상호 협력하에 김제시 지평산단에 ‘첨단농기계융합지원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을 구축한 바 있다. /인재용 기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9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지사를 면담하고 양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 방안을 협력키로 했다. 사진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성일 원장 악수하고 있다.

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인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중학생들에게 선거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실습, 체험 등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이번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하며,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와 민주시민교육 강사가 해당 중학교를 직접 출강하거나 중학생들이 도선관위를 내방해 실시한다. 연수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선착순이며, 연수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도선관위 홍보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b.nec.go.kr>) 공지사항 참고, 도선관위 홍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박강수 회장 취임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광수 국회의원, 정문천 국회의원, 김춘진 전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배인재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전북의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민관 단

체 대표들과 60여 회원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송하진 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취임식 행사에 이어 제9대 박강수 회장의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의 운영 방향인 ‘노인복지 사각지대 zero전북/평생친구 재가복지, 열어가자!’라는 슬로건으로 비전을 선포하며 종사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3년 임기가 시작됐음을 선포했다. /인재용 기자

학교밖 청소년들 꿈을 담고 피우는 공간 마련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면서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종교·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전북도와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일 도내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백제대로 드림문화재단 3층에 ‘꿈틀’을 개소하고 현관식을 가졌다. ‘꿈틀’은 도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1,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

한 자유공간으로 동아리 활동과 학습, 건강검진,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을 비롯해 간단한 먹거리와 휴식도 제공하게 된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직면하는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하고 정책제언에 따른 청소년 전용공간을 개소하게 됐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도내 학교 밖 청

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또래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꿈틀’은 재단법인 드림문화재단 엄윤숙 이사장의 후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청소년들의 꿈을 담는 틀’, ‘청소년들의 꿈이 꿈틀꿈틀 피어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경아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자유공간 ‘꿈틀’ 개소·현판식 가져

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비행·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꿈틀은 건전하고 건강한 또래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꿈틀’ 개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위기 청소년 관련 기관 홍보, 비행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더문캠 ‘가짜뉴스대책단’ 가동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9일 SNS상의 가짜뉴스와 허위 게시물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책단 단장은 문용식 전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이 맡았다. 더문캠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 예비 내각 명단 지라시’가 유포되고, ‘문 전 대표의 집안 나주 남편 문씨가 빨갱이’라는 글이 퍼지는 등 명예훼손 사례

가 늘고 있다. 또 ‘문 전 대표 비자금 20조’, ‘금과 1,000t 보유했다’, ‘아버지가 친일공무원 및 북괴군 상좌다’라는 허위주장도 유포되고 있다. 문 단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진실을 속이려는 단체나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